



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표적

선지자 사무엘은

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가르쳤어요.



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 **하늘에 새로운 별**이 떠오를 것이라고 가르쳤어요. 그리고 한 낮과 한 밤이 있고, **어둠이 없는** 하루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!

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**이 표적들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** 가르쳤어요. 그는 백성들이 구주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바랐어요.



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, 우리도 **준비되어** 있기를 바라요! ●



경전 퀴즈

니파이는 어디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나요? (힐라만서 7:10)

무엇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나요? (힐라만서 12:23)

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떤 동물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모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요? (제3니파이 10:4)

나는 물몬경을 읽을 수 있어요!

물몬경을 읽은 다음에는 그림의 일부를 색칠해 보세요. 『와서 나를 따르라』 주별 읽기 과제와 함께 다음 성구들을 읽어 볼 수 있어요.

첫째 주: 힐라만서 5:12

둘째 주: 힐라만서 10:2~4

셋째 주: 힐라만서 14:8

넷째 주: 제3니파이 4:31~32

다섯째 주: 제3니파이 11:10~11



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났던 새로운 별을 떠올릴 수 있는 별을 만들어 보세요. 직접 그리거나 여러분이 찾은 물건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. 여러분의 작품을 우리에게도 보내 주세요! 보내는 방법은 뒤표지에 나와 있어요.